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Lock down을 경험하면서 예민한 영적 안목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 전 교인이 함께하는 공동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목상이 일상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시편 72-92편입니다).
3. TEE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향존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개강: 9월 20일, 기도 과목은 평생과 신도 중 한 과목을 수강한 다음 가능).

과목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요일 및 시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3시50분
담당 목사	이성철 목사	이성훈 목사	이태한 목사
기간 / 회비	15주 / \$20	11주 / \$25	11주 / \$20

4. 전화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성도 간의 교제로 서로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5.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 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9월 교회사역일지

9월 20일 (주일)
그루터기 주일
9월 27일 (주일)
성찬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 (수)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9월 기도순서

9월 20일 (주일)
박병민 장로
9월 23일 (수)
정진택 집사
9월 27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30일 (수)
정혜숙 권사

9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김순자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7호

2020.09.13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철
부 목사 이성훈

청년예배

금주기도 -
다음주일 -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96:1-3	인도자
✧찬송	37장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9장	다함께
대표기도	-----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창세기 12:10-20	인도자
설교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이태한 목사
찬송	456장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응답송	310장 (1,4절)	다같이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일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기도	정옥자 권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2:24-24
설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태한 목사
찬송	360장
주기도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통가 왕국 박종균 선교사 소식입니다.

갈보리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에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많은 때에 목사님과 사모님, 갈보리교회는 평강을 누리시는지요? 저희는 목사님과 갈보리교회에서 기도해 주심을 힘입어서 평안하며 적게나마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갈보리교회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도우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깊고 넓은 사랑을 심비에 새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때에, 선교지와 저희의 부족함과 고통을 아시고 크게 체휼하여 주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만 입이 있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입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바램과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2006년 3월에 통가 왕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가졌던 선교 비전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바른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치원을 건축하여 어린 영혼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싶었습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은혜로 10년(2010년) 전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14년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렸습니다. 저희와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목사님께서 2019년 7월에 (9년 만) 오셨습니다. 그때에 저희 비전을 들으시고 현지를 둘러보신 후에, 유치원을 건축하면 힘껏 협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파송 교회가 매우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2019년 11월 중순부터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다 마치고서 지난 8월 24일에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중고 승합 차와 복사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과 교육 자료 및 사무용품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열정을 다하여 좋은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종균 선교사 드림

기도 제목

-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 영육으로 강건하게 사역하고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3. 교회 학교 학생들이 Lock down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나눔란

2020년 9월 6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찾아가야 할 곳> 창세기 12:4-9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히 11:8) 순종하여 떠나갔지만(12:4)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1) 75세라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장애였습니다(12:4):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나이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은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 했으며(렘 1:6) 반대로 모세는 80세에 찾아온 하나님께 나이 들어 일할 수 없다 했습니다(출 4:10).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순종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히 11:6).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보여주셨습니다(12:5)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히 12:1) 떠나야만 목적지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뚫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12:4). 그래서 뚫은 고난 앞에서 쉽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것만이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2)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부조화가 장애였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12:5)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12:6)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12:7). 약속된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는데 게다가 내가 아닌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정작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질문 대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현실과 약속이 조화를 이루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롬 8:28).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됩니다.

3) 아브라함은 이런 장애물들을 예배를 통해 극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애물 앞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12:7-8). 이것이 니므롯의 바벨탑을 쌓는 삶에서 제단을 쌓는 삶으로 바뀐 예배자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나안 주민들에게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롬 12:1) 하신 뜻은 우리의 돈이나 성공, 명예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벨탑을 쌓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며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방향을 바꾸어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며 이것만이 바벨탑 세상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신 것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배자의 길을 가는 갈보리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2: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